

지명 전거 표준화를 위한 지명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Place Name Authority Standardization

백 지 원 (Ji-won Baek)**

이 성 숙 (Sungsook Lee)***

초 록

본 연구는 지명 전거데이터의 체계적 구축과 표준화 필요성에 따라 지명 전거데이터 기술에 필요한 한국 특성에 맞는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국가 전거 고품질화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명 전거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 및 사례 조사를 실시하고, 지명 전거 구축을 위한 각국의 규칙과 지침을 분석했다. 이러한 현황 조사 및 규칙 분석을 바탕으로 지명 전거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개념 범위와 용어를 정의하고 지명 전거데이터 지침 개발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 지침이 포함해야 할 범위, 체계, 기존 규칙의 참조 내용과 방식 등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침의 체계는 Original RDA와 NCR을 기준으로 삼아 설정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구축 대상 범위, 우선 지명 선정 및 기록, 이형 지명의 기록, 지명의 속성 등으로 지침을 구성하고 내용을 제시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지명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향후 논의사항을 밝혔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providing a foundation for high-quality national place name authority data by developing Korean-specific guidelines for place name authority data in response to the need for systematic construction and standardization of authority databases. To this end, a surve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and cases related to place name authority data was conducted, and the rules and guidelines of each country for establishing place name authority data were analyzed. Based on these surveys and rule analyses, the scope of concepts and terminology required to build a place name authority database were defined and th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place name authority data guidelines was set. The analysis also determined the scope and framework of the guidelines, and how they should be referenced to existing rules. The structure of the guidelines proposed in this study is based on the original RDA and NCR. Based on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analysis process, the guidelines were organized and presented in terms of scope of construction, selection and recording of preferred place names, recording of variant place names, and attributes of place names to propose a technical guideline for place name authority data that fits the Korean situation. Future discussions were revealed accordingly.

키워드: 지명, 지리명, 전거, 전거제어, 기술 규칙, 목록 규칙, 지침

Place, Place Name, Authority, Authority Control, Description Rule, Cataloging Rule, Guideline

* 본 연구는 2023년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전거 고품질화를 위한 지명 전거 표준화 방안 연구』 연구 영역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연구 논문으로 발전시킨 것임.

** 송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wb@sewc.ac.kr) (제1저자)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nfolee@cn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4년 2월 20일 논문심사일자 : 2024년 2월 21일 게재확정일자 : 2024년 2월 27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5(1): 169-192, 2024.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4.35.1.169>

* Copyright © 2024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오늘날 도서관 서비스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AI, IoT 등의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위해서는 국가전자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표준화 노력이 필요하다. 국외 주요국 도서관과 관련 단체에서는 개인명과 단체명, 저작, 표현형, 지명 등을 전자 관리의 주요 대상으로 삼아 이의 구축을 위한 기술 규칙이나 지침 등 표준적 조직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전거의 대상 중 지명(地名, geographic name)은 장소(場所, place)에 부여된 이름이다. 지명은 국가지식 정보자원의 연계뿐만 아니라 공공업무, 일상생활 속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동해의 표기 문제 등과 관련하여 지명 전거가 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데이터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수의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전거 현황은 2023년 5월 30일 기준으로 주제명 중 지명 9,251건이 구축되었다. 이중 국명(지명)이 355개, 행정구역명(지명)이 60개, 지명(일반)이 8,836개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 표목 업무지침(국립중앙도서관, 2021a)에 의하면, 주제명표목 지명의 경우 국가·지역명, 도시명을 포함한 행정단위명, 산·강·호수 등의 자연 지명, 특정 건축물·교량 등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주제명표목을 부여한다. 국립중앙도

서관은 업무 편의상 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명을 국명, 행정구역명, 그 외 지명으로 범주를 구분하여 활용하고 있다.

전거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대학도서관 4곳의 각 담당자에게 2023년 6월 메일, 전화의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지명 전거를 구축하고 있는 곳은 없었고 관련 지침도 존재하지 않았다. 4곳 중 통계상 지명 전거가 존재하는 A 도서관의 경우에도 직접 지명 전거를 구축하지 않으며, 다만 Library of Congress(이하 LC) 데이터를 내려받으면서 지명 구축 건수 통계가 자동 생성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국의 지명 전거 구축 사례를 보면 한국 지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표목의 문자열이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개체를 같은 개체로 취급하는 오류가 발견되거나, LC의 한국 지명 전거가 VIAF(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 가상 국제 전자 파일)로 연결되지 않는 것과 같은 미비한 점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기술 규칙과 지침도 대체로 로마자로 된 지명에 치중되어 있어, 동양권의 지명에 대해서는 그 특성에 맞는 명확한 규정이나 적절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서구권의 목록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규칙의 적절성과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지명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해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명 전자데이터를 위한 기술 규칙이나 별도 지침이 부재하고, 이에 고품질의 전자데이터 구축과 서비스는 요원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지명 전자데이터의 체계적 구축과 표준화 필요성에 따라 지명 전거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사례 조사와 지명 전거와 관련된 규칙과 지침의 분석을 통해 지명 전거

데이터 기술에 필요한 한국 특성에 맞는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국가 선거 고품질화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연구 방법으로 문헌 연구 및 사례 연구, 내용 분석을 사용하였다. 먼저 지명과 관련된 각국의 목록규칙 및 관련 지침을 분석하였다.

국내 표준 및 지침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선거데이터 및 주제명표목의 작성을 위한 지침인 『국립중앙도서관 선거데이터 기술 지침-개인명』(국립중앙도서관, 2018a), 『국립중앙도서관 선거데이터 기술 지침-단체명(안)』(국립중앙도서관, 2018b),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 업무지침』(국립중앙도서관, 2021a)을 분석하였다. 또한, 2024년 발간 예정인 『한국목록 규칙 5판』(KCR5(안))의 관련 부분을 참고하였다.

해외 기술 규칙으로는 영미목록규칙 2판(이하 AACR2)(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2), 지원의 기술과 접근(Resource Description & Access, 이하 버전에 따라 Original RDA 또는 Official RDA로 칭함.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는 RDA로 통칭함), 프랑스어판 RDA(Transposition française de RDA, 이하 RDA-FR)(Transition Bibliographique Groupe Normalisation, 2023), 일본의 日本目録規則 2018年版(이하 NCR)(目録委員會, 2018) 등에서 지명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LC의 각종 선거데이터 구축 지침 및 주제명표목 작성 지침과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건명작업 지침(國立國會圖書館收集書誌部, 2022)을 분

석하였다.

이상의 현황 조사 및 규칙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지명의 구축 대상 범위, 채택표목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한 한국 실정에 맞는 지명 선거데이터 기술 지침(안)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향후 논의사항을 밝혔다.

2. 지명 선거데이터 관련 규칙 분석

2.1 목록 규칙

2.1.1 AACR2

AACR2는 지명에 대해 23장 Geographic Names에서 다루고 있다. AACR2의 23장은 일반 규칙, 이름 변경, 추가사항, 관할권의 종류를 나타내는 용어를 포함하거나 요구하는 지명으로 나뉘어져있다. 일반 규칙으로는 영문 양식, 토착어 형식을 설명한다. 이름 변경에서는 장소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해야 할 규칙에 대해 다룬다. 추가사항에서는 구두점, 각종 지역의 특성에 따른 추가나 축약에 대한 규칙을 다룬다. 또한, 관할권 유형에 따른 지명의 규칙을 다룬다.

AACR2의 23장 중에는 단체명에 대한 규칙인 24장을 참조하도록 규정한 곳이 있다. AACR2의 23장의 서론인 23.1A에서 “지리적 개체의 이름(이 장에서는 “장소”로 지칭)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단체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며(24.4C 참조), 다른 단체명에 추가되는 이름(예: 회의 이름, 24.7B4 참조), 일반적으로 정부(24.3E 참조) 및 정부가 아닌 커뮤니티의 이름으로도 사용된다.”라고 하였다.

즉, 지명이 지리적인 명칭일 뿐 아니라, 단체를 한정하는 핵심 요소 또는 정부나 다른 단체를 지칭하는 명칭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지명에 대한 규칙이 단체명에 관한 규칙을 함께 사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2.1.2 RDA

RDA는 링크드 데이터 개념과 LRM(Library Reference Model)을 적용하기 위한 3R Project(RDA Toolkit Restructure and Redesign Project) 이후 LRM 개체와 속성 및 관계를 기반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RSC, 2021). RDA 툴킷에서 2017년 4월 11일까지의 내용을 담은 RDA는 'Original RDA'라고 표기되어 있고, 3R Project 이후의 버전은 'Official RDA'로 구분하여 제공된다.

Original RDA의 지명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은 Section 4의 16장 'Identifying places(장소의 식별)'에서 나타난다. Original RDA의 16장은 크게 장소의 식별에 대한 일반지침, 지명, 장소 식별기호, 장소를 나타내는 접근점의 작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명에 대한 지침은 지명 기록에 대한 기본 사용법, 우선 지명, 이형 지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Original RDA 16장의 '16.0 목적 및 범위'에 따르면, "RDA 16장은 주제 관계 및 지역 범위의 표시를 위해 지명을 사용하는 것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와 관련된 사용법은 RDA 초판 발매 이후에 개발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칙의 개발은 초판 이후 개정판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Original RDA의 개정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한편, LRM을 반영한 Official RDA의 11개 개체는 총 1,700개 이상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

는데, '장소' 개체에 대해서는 총 54개의 요소가 정의되어 있다. Official RDA는 '장소' 개체에 대하여 "주어진 공간의 범위"라고 정의한다. '장소' 개체를 위한 최소 수준의 기술로는 "장소의 명명(appellation of place)", "장소의 이름(name of place)", "장소의 접근점(access point of place)", "장소의 식별자(identifier of place)"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한다고 설정하였다. 장소의 식별과 접근을 위해 유용한 요소를 기록할 수 있는데, 이는 선택사항으로 주어진 조항이며, 응용 프로파일(application profile)에 명세가 정의되어 있다. '장소'에 대하여 속성 요소는 4개, 관계 요소는 50개가 정의되어 있다.

Official RDA는 전거 MARC 형식으로 작성되는 현재의 우리나라 지명 데이터 구축에 있어 개념 모델 자체가 다르므로 아직까지는 크게 의미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riginal RDA의 장소에 관한 규칙을 주된 기준으로 하고, Official RDA는 향후의 대비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참고하였다.

2.1.3 한국목록규칙

한국목록규칙 4판은 표목부에 대한 규칙 없이 기술부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지명 전거에 대한 규칙은 없다. 국제적 표준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RDA가 AACR2 및 KCR4 등 이전 세대의 목록규칙과 개념 모형에서부터 비롯된 큰 차이가 있고, 이러한 RDA를 반영한 KCR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는 한국목록규칙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한국목록규칙의 지명에 대한 방침을 수용하고자 하였으나, 현재의 KCR4에는 지명에 관한 규칙이 없고, 앞으로 발표 예정

인 KCR5에도 지명에 관한 규칙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KCR5가 2024년경 RDA의 이론과 형식을 반영하여 발표될 예정이나, 지명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RDA 규칙 자체가 미완성이므로, 이를 반영한 KCR5도 미개발된 상태 그대로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지리 선거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갖출 가능성은 희박하다. Original RDA는 개발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처럼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국내의 규칙과 지침을 독자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2.2 LC 지침

LC에서 작성·사용하는 주요한 지침 중 지명과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것으로 미국의 회도서관 협력 목록 정책 선언문(Library of Congress-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 Policy Statements(LC-PCC PS))이 있다. LC-PCC PS는 목록 작업의 사전 결정을 위한 여러 주제를 다루는 정책 문서이다. LC-PCC PS 중 LC Policy Statements for Chapter 16: Identifying Places(LC-PCC PS: Identifying Places)(LC-PCC, 2017)와 LC-PCC Metadata Guidance Document: Place(LC-PCC MGD: Place)(LC-PCC, 2023b)가 대표적이다.

LC-PCC PS는 RDA를 바탕으로 여러 실무적인 정책 선언을 하고 있다. LC-PCC PS: Identifying Places(Document Date: August 8, 2017)(LC-PCC, 2017)는 Original RDA를 대상으로 RDA의 규칙을 LC-PCC PS가 추가 정보나 지침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Original RDA에서 규정이 미

개발된 상태로 남아있는 '16.4 장소를 나타내는 접근점'에 대해서도 LC-PCC PS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LC-PCC MGD: Place(LC-PCC, 2023b)는 Official RDA를 대상으로 작성된 실무 지침이다. Original RDA와 Official RDA가 지명 선거의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향후 Official RDA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참조할 지명 선정 및 속성과 관계의 기록에 대한 지침을 다루고 있다.

또한, Library of Congress Descriptive Cataloging Manual 중 하나인 Descriptive Cataloging Manual(DCM) - Z1 Name and Series Authority Records(LC, 2024a)가 있다. 특히 이의 부록 1: Ambiguous Entities에서 주제 선거인지 이름 선거인지 애매한 개체들에 대해 설명하고 대표적인 사례들을 열거하였는데, 이 중 주제인지 지명인지 애매한 개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LC는 Subject Headings Manual(SHM)이라는 이름으로 주제명표목의 작성을 위한 다양한 지침을 작성하여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 지침은 부록과 색인을 제외하고도 2024년 2월 현재 301개의 개별 문서로 이루어진 방대한 양이다. 그 중 지명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명의 주제명표목 지침 중 표목에 관련된 대표적인 지침으로 H 690 Formulating Geographic Headings(LC, 2024b)가 있다.

H 690은 지명에 대한 표목을 정치적 관할권의 이름과 비관할권적 지명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눈다. 먼저, 정치적 관할권의 이름은 이름 선거레코드로 취급되고 이 중 다수는 주제 선거레코드로 취급되기도 한다. 중복된 선거레코드

로 인한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LC는 1995년 1월에 이름 표목에 대한 새로운 주제 전거레코드의 생성을 중단하고 주제 전거 파일에서 이름 표목에 대한 기존의 중복 전거레코드를 삭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정치적 관할권명은 이름 전거로만 간주하는 DCM Z1의 현재 지침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비관할권적 지명은 특정한 유형의 건축적 구조물을 포함하여 지리적 범위(geographic extent)를 갖는 개체의 표목으로, 주제표목에 관한 H 690의 지침에 따라 작성되며 지리적 표목으로 취급된다.

H 690은 이 외에도 장소의 우선 명칭, 우선 명 선정에 관한 정보원, 표목의 형식 선정, 지명에 나타나는 요소들의 배열, 약어, 어두관사, 음역, 동일한 지명으로 인한 충돌을 해결하는 법, 대문자법, 참조 방법 등 구성의 측면에서는 RDA와 유사한 형식을 보이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더 상세한 지침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상과 같이 LC 주도의 규칙들은 RDA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명과 관련하여 특히 이름 전거와 주제명 전거의 구분에 대해 공통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할권과 비관할권을 구분하여 각기 이름 전거와 주제 전거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명 전거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해 지명 전거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술 규칙이 필요하고, 이의 세부 내용을 위해서는 전거데이터의 성격과 쓰임에 따른 구분, 이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우선어의 선정, 관할권을 처리하는 기준 등 실무 규칙 또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3 국립중앙도서관 지침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명과 관련된 별도의 기술 지침과 구축 매뉴얼 없이 주제명 DB의 한 유형으로 지명을 구축하고 있다. 이때 참고하는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 내부 지침인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 업무지침』(국립중앙도서관, 2021a),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 - 개인명』(국립중앙도서관, 2018a),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 - 단체명(안)』(국립중앙도서관, 2018b), 『KOLIS 전거관리 시스템 활용 매뉴얼-개인명·단체명』(국립중앙도서관, 2021b), 『KOLISIII 사용자지침서』(국립중앙도서관, 2022) 등이다.

이 중 기술 지침에 해당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 업무지침』에서는 주제명으로 부여할 수 있는 표목의 종류 중 하나로 지명을 다루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 - 개인명』에서 지명이 언급된 부분은 개인과 관련된 장소로서 출생지, 사망지, 관련 국가(국적, 활동 국가), 거주지를 다루는 부분이다. 개인명 전거에 통제 어휘를 사용한다면 지명 전거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 - 단체명(안)』은 정부기관명 등으로 사용된 지역명을 단체명으로 다루었다.

3. 지명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 개발 방향

3.1 개념 범위와 용어 정의

3.1.1 장소와 지명

각종 개념 모형 및 규칙에서 나타나는 장소

와 지리에 관한 주요 개념과 정의는 다양하다. RDA-FR에서는 RDA에 비해 지리의 범위를 넓게 보고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례로 상상의 장소를 지리 용어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고 있다. 반면, RDA에서는 실재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Official RDA의 기반이 된 LRM에서도 장소를 '일반적으로 물리적 대상이나 지정학적 실체와의 관련성을 통해 식별되는 지리적 영역 또는 공간의 범위에 대한 인간의 식별'이라고 정의하고, 물리적 대상은 지리적 특징 또는 인공물을 통해 식별되는 것을 뜻한다고 정의하여, RDA는 실재하는 장소를 지명 데이터의 범위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으로 식별되거나 실체를 갖는 공간적 범위를 갖는 대상을 장소라고 정의하고, 그 외의 실재하지 않는 공간이나 장소는 주제로 간주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공간의 이름을 나타내는 용어는 지명, 지리명, 장소명 등 여러 용어가 혼재되어 있으나 '장소'라는 개체의 명칭은 '지명'으로 통일하고, RDA의 정의에 기반하여 '장소'는 특정 공간의 범위, '지명'은 장소의 이름, 지역의 이름으로 정의하였다.

3.1.2 관할권

각종 지명 관련 기존 지침에서 개념적인 애매함이 있었던 관할권에 대한 개념이 Official RDA에서 개정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관할권의 의미와 용어 사용에 대해 RDA 장소 분과(RSC/PlacesWG/1)에서 2023년 6월 6일에 승인하고, 2023년 7월에 툴킷에 반영하여 발행한 관할권에 대한 개정 사

항이 있다. 'Jurisdictions'라는 용어가 단체를 뜻하는 경우와 지역을 뜻하는 경우로 애매하게 혼용되어 왔으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체로서의 의미는 단체명에 관한 지침에서 다루는 것으로 보아 배제하고, 지리적 영역을 뜻하는 관할권으로 'territorial jurisdiction'과 'ecclesiastical jurisdiction'을 범위에 포함시켰다. 즉, 정치 단체가 관할하는 지리적 영역('territorial jurisdiction'), 그리고 종교 단체가 관할하는 지리적 영역('ecclesiastical jurisdiction')이 지명에 속하는 관할권으로 간주된다. 전자는 국가, 주, 도 등의 행정구역을 뜻하고, 후자는 종교적으로 구분하는 지역의 구분 단위(예: 교구)를 의미한다.

3.1.3 우선 지명

전거의 기능은 서지데이터 작성 시 채택표목(대표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동의어를 집중시키고 동음이의어를 식별함으로써 양질의 검색 접근점을 만들 수 있고, 수록 정보와 검색어를 매칭하여 정보 접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거에 대한 논의에서는 채택표목의 선정이 중요한 문제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채택표목 대신 '우선명'을, 참조표목 대신 '이형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지명의 우선명칭은 장소의 우선명, 장소의 우선 명칭, 우선 지리명, 우선 지명, 지리명 채택표목 등 여러 유형의 용어로 지칭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한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개인명』 및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단체명(안)』에서는 '채택표목', '참조표목'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Original RDA에서 '표목' 대신 '접근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표목'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점, RDA 이후 '채택표목' 대신 '우선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우선 지명'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지명 참조표목' 대신 '이형 지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최근의 국제적 목록규칙 추세에 따르고자 하였다.

3.2 개발 근거

3.2.1 참조한 표준 및 지침

본 연구는 지명 기술 지침의 개발에 있어 국제서지제어의 기초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제적인 서지 기술 및 전거 데이터 관리의 방향과 추세에 맞추어 자원 기술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 및 지침을 반영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술 지침과 기존 표준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RDA의 두 가지 버전 중 전거통제용 MARC 형식을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 구축의 기본 포맷으로 보아 Original RDA를 기반으로 하였다. AACR2, Original RDA, Official RDA, BnF, NCR 등 현행 도서관 목록규칙에서 지명 전거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현재 국제적 표준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Original RDA는 각국 목록규칙에 큰 영향을 미쳐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각국의 목록규칙이 RDA의 체계와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하여 개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지침의 개발에 있어 가능하면 한국목록규칙의 지명에 대한 방침을 수용하고자 하였으나, 현재의 KCR4에는 물론, KCR5(안)에도 지명에 관한 규칙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본 지침은 RDA를 기본으로 하되, 동양권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참고하기 위하여 NCR을 참고하였다.

NCR(2018)은 일본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에서 편집하여 출판되고 있다. 이 규칙은 국제표준에 대한 준거와 RDA와의 상호 운용성을 바탕으로 하고 FRBR(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요건) 등의 개념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개발되었으며, 제12장에서 장소의 기술에 대해 규정하였다.

한편, 형식 표준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전거통제용(KS X 6006-4)」(국립중앙도서관, 2016)과 「MARC 21 Format for Authority Data」(Library of Congress, 2023)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기타 외국 지명의 표기법과 관련해서는 「외래어 표기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17-14호(국립국어원, 2017)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명 전거데이터 작성의 국제적인 방식과 조응되도록 하고, 동서양의 특징과 차별성을 포괄하기 위해 이상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참고하되, 장소에 관한 Original RDA와 NCR의 체제와 구성을 주된 틀로 삼고, 이들의 구성을 비교하여 한국식 지명 전거 기술 지침의 체계를 세웠다(〈표 1〉 참조).

Original RDA와 NCR의 구조는 일반 원칙에 이어 우선 지명의 선정 및 기록과 이형 지명의 기록의 2개 부문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고, 지명의 속성 및 주기 기록, 설명 등에 대해서는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다만, NCR은 지명의 기록과 관찰권의 유형을 다루는 데 있어 일본, 중국, 한국을 별도로

〈표 1〉 장소에 관한 RDA와 NCR의 체계 비교

RDA 16: 장소의 식별		NCR 12장: 장소
16.0	목적 및 범위	
16.1	장소의 식별에 대한 일반지침	
16.1.1	정보원	#12.0 총칙
16.1.2	장소를 식별하는 접근점의 이용	#12.0.1 기록의 목적
16.2	장소명	#12.0.1.1 규정의 구성
16.2.1	장소명 기록에 대한 기본 사용법	
16.2.1.1	범위	
16.2.1.2	정보원	#12.0.2 정보원
16.2.1.3	장소명 기록에 대한 일반지침	#12.0.3 기록 방법
16.2.2	우선 장소명	#12.1 장소의 우선명칭
16.2.2.1	범위	#12.1.1 기록의 범위 및 정보원
16.2.2.2	정보원	#12.1.1.1 기록의 범위 #12.1.1.2 정보원
16.2.2.3	우선 장소명의 선정	#12.1.2 우선명칭의 선택 #12.1.2.1 동일명칭의 다른 형식 #12.1.2.1A 언어 #12.1.2.1A 언어 방법 #12.1.2.1B 문자 종류 및 읽기 #12.1.2.1C 관용형, 간략형 #12.1.2.2 관할권을 지닌 정부의 명칭 #12.1.2.3 명칭의 변경
16.2.2.4	우선명의 기록	#12.1.3 기록의 방법 #12.1.3A 일본어의 우선명칭 #12.1.3A 일본어의 우선명칭 방법 #12.1.3B 중국어의 우선명칭 #12.1.3C 한국·조선어의 우선명칭 #12.1.3D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조선어 이외 언어의 우선명칭
16.2.2.5	비우선문자로 발견되는 이름	#12.1.3.1 어구 등의 생략
<우선명의 선정>	동일 이름에 대한 상이한 언어 형식	#12.1.3.1A 첫머리에 오는 관사 #12.1.3.1A 첫머리에 오는 관사 방법
16.2.2.6		#12.1.3.1B 이니셜
16.2.2.7	이름의 변경	#12.1.3.1C 행정구분을 나타내는 용어
<우선명의 기록>	관할권의 유형을 지칭하는 용어	
16.2.2.8		
16.2.2.9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전)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전)유고슬라비아 등 지역 내의 장소	#12.1.3.2 상위의 장소나 법정 구역 #12.1.3.2A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자체) 명칭의 관용형 #12.1.3.2B 저작, 가족, 단체와 관련된 장소 #12.1.3.2B 저작, 가족, 단체와 관련된 장소 방법
16.2.2.9.1	주나 준주 등 (States, Provinces, Territories, Etc.)	#12.1.3.2.1 일본의 장소
16.2.2.9.2	주나 준주 내의 장소(Places in a State, Province, Territory, Etc.)	#12.1.3.2.2 외국의 장소
16.2.2.10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12.1.3.2.2 외국의 장소 임의추가 #12.1.3.2.2 외국의 장소 방법
16.2.2.10.1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내의 장소	#12.1.3.2.3 해외영토, 속령 등 #12.1.3.2.4 시정촌 등의 국내 장소
16.2.2.11	해의 영토, 속령 등	#12.1.3.3 동일명칭의 상이한 장소
16.2.2.11.1	해의 영토나 속령 내의 장소	
16.2.2.12	기타 관할권 내의 장소	
16.2.2.13	동일한 이름의 상이한 장소	
16.2.2.14	시(cities) 등 내의 장소	
16.2.3	이형 장소명	#12.2 장소의 이형명칭
16.2.3.1~16.2.3.2	범위 정보원	#12.2.1 기록의 범위·정보원
16.2.3.3	이형명 기록에 대한 일반지침	#12.2.2 기록의 방법
16.2.3.4	어두관사	
16.2.3.5	완전명	
16.2.3.6	머리글자 및 축약형	
16.2.3.7	대체 언어명	
16.2.3.8	기타 이형명	
<기타 식별 속성>	장소 식별기호*	#12.3 설명 및 관리 요소*
16.3		
<장소를 나타내는 접근점>	장소를 나타내는 접근점의 작성	
16.4		
16.4.1	장소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	
16.4.2	장소에 대한 이형 접근점*	

* 미개발 또는 개발이 보류된 부분

고려하고 있는 등 RDA와 비교해 동양권 지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체계를 근간으로 삼고 내용적으로는 두 규칙 전체를 문장 단위로 비교 검토하였다.

3.3 포함 범위

주제명과 지명 전거의 구분 없이 지명의 성격을 가진 개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장소에 관한 여러 LC의 지침이 주제명과 이름 전거의 구분에 관해 다루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주제명과 이름 전거의 구분에 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에도 주제명표목 아래 지명 데이터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단체명 이름 전거에도 지명 데이터의 형식을 사용하는 단체명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둘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을 요구하는 일이다.

데이터 구축 및 지침의 적용, 데이터 관리의 차원에서는 이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장소 개체는 지리적 개체로서는 물론 주제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본 지침에서는 지명과 주제명의 구분이 애매할 수 있는 사례는 장소 개체로 보아 본 지침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즉, 본 지침은 '장소'라는 개념을 가진 실제적인 개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풍부한 지명 전거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하고, 특정 장소의 명칭을 지명으로 관리할 것인지, 주제명으로 관리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다.

또한, 지명의 속성을 포함시켰다. Original RDA는 장소의 식별을 위한 속성과 접근점의

작성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미개발인 상태로 남아있다. 이를 참조하여 작성된 NCR 역시 속성에 대한 정의는 내리지 않고 있다. 단, Official RDA에서는 4개의 장소 속성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Official RDA는 아직 본격적인 사용 전이므로, 속성 정의와 인코딩 방식만 정의되어 있다. RDA-FR은 속성을 정의했으나, 장소의 범주 자체가 달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LC-PCC MGD에서는 Official RDA 기준으로 속성 4개를 설명하고 있다.

3.4 체계

Original RDA는 장, 절 간의 수많은 참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관련 있는 조항 링크로 찾아가기 쉽게 편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성은 관련성 있는 규칙을 손쉽게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오히려 필요한 지침을 평면적으로 한눈에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한다. 끊임없는 링크 구조로 인해 원하는 규칙을 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다른 곳을 찾아가야 하고 경로를 잃어버리기 쉽다는 구조적 복잡성이 있다.

이에 비해 NCR은 설명이나 참조 구조가 단순하다. 그러나 별법과 옵션의 수가 많아 체계가 복잡하다. RDA도 여러 옵션을 두고 있고 편집상 본 규칙과 옵션의 구분이 별도의 표기 없이 텍스트 색깔과 크기, 글씨체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위계와 포함관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무 지침에서는 하위 번호체계를 아라비아 숫자만을 이용하여 지침의 계위가 명확하게 파악되도록 하고, 옵션

선이 필요한 경우 편집상 옵션이 보다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5 기존 규칙의 참조 방식

지침 개발 시 참고한 각종 규칙과 지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형식과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적용하였다.

첫째, RDA에 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침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Original RDA의 복잡한 장(chapter)간, 본문과 부록 간의 참조 구조를 단순화하여 지침 활용이 용이하도록 했다. 서양 중심, 로마자 중심의 규칙을 탈피하여 한국 및 동양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중·일 중심의 항목 개발 및 내용 설계를 했다. 또한, 규칙의 복잡한 체계와 편집 방식을 완화하여 지침의 이해와 활용이 용이하도록 했다. 한편, 장소의 속성 및 적용 방식을 위해서는 Official RDA를 참고하였다.

둘째, NCR은 한·중·일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일본 중심적인 규칙이므로, 이를 한국 중심으로 변형하기 위해 전체 체계와 내용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NCR의 옵션 및 별법 체계를 단순화하고, 복잡한 장정 구조를 단순화하였으며 한국 중심의 규칙으로 내용을 변경하고 보완하였다.

셋째, 프랑스의 RDA-FR은 Original RDA를 기반으로 하였으므로 RDA와 대동소이하나 지명의 개념적 범위가 달라 상호 비교하는 방식으로 참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장소의 속성 설정을 위해 참조하였다.

넷째, KCR5는 Original RDA를 반영한 형식과 내용으로 개정될 예정이나, 정식으로 발

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KCR5 개정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2023년 6월 30일 자 버전을 참조하여 KCR5(안)에는 지명의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KCR5(안)에서는 용어의 사용 방식 및 단체의 속성 기술에 관한 1.7절을 위주로 참고하였다.

다섯째, LC-PCC PS: Identifying Places에서는 Original RDA를 보완하는 지침 및 Original RDA에서 미개발 상태로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참고하였다. LC-PCC MGD: Place는 Official RDA의 적용에 있어서 지명 선정 및 속성과 관계의 기록에 대한 지침을 참고하였다.

여섯째, LC DCM Z1에서는 주제 전거인 지 이름 전거인지 애매한 개체들의 데이터화 방침과 제시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참고하였다. LC SHM에서는 지명 표목의 작성 지침에 관한 기준 및 내용을 참고하여 반영하였다.

참고한 표준과 지침의 주된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외의 기술 규칙 및 실무 수준의 지침을 참조하여 국제적 통용성을 갖추되, 한·중·일 중심의 동양 문화권의 특수성과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수정하였다.

4. 지명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

4.1 구성

현행 각국의 지명 기술 규칙은 우선 지명의

〈표 2〉 지명 기술 지침 개발을 위해 참조한 목록 규칙 및 지침

구분	규칙 및 지침	참조한 내용 및 방식
목록 규칙	Original R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한 장(chapter) 간, 본문과 부록간의 참조 구조 단순화 • 서양 중심, 로마자 중심의 규칙을 탈피하여 한국 및 동양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항목 개발 및 내용 설계 • 규칙의 복잡한 체계와 편집 방식 완화
	Official R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의 속성 및 적용 방식
	NC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중심적인 규칙을 한국 중심으로 변형하여 내용 변경 및 보완 • 옵션 및 별법 체계 단순화, 복잡한 장절 구조 단순화
	RDA-F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의 속성 설정
	KCR5(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및 단체명을 기술하는 방식
목록 작성 지침	LC-PCC 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dentifying Places: Original RDA를 보완하는 지침 및 Original RDA에 미개발 상태로 있는 부분에 대한 지침 참고 • MGD: Place: Official RDA의 적용에 있어서 지명 선정 및 속성과 관계의 기록에 대한 지침
	LC DCM Z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전거인지 이름 전거인지 애매한 개체들의 데이터화 방침 및 대표적인 사례들을 제시한 내용
	LC SH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명을 주제명으로 다룰 때 표목의 작성 지침에 관한 기준 및 내용

선정과 기술 방법이 중심이 되고, 그 나머지 영역이 이형 지명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본 지침에서는 우선 지명 선정의 일반 원칙에 이어 우선 지명, 이형 지명의 구분과 기술법, 그리고 대표적인 속성으로 나누어 지침 체계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침은 크게 머리말, 우선 지명, 이형 지명, 지명의 속성이라는 4개의 절로 구성하였고 그 하위의 세부 구성은 〈표 3〉과 같다. 지침은 최대 4단계 깊이까지 설정하였다.

4.2 우선 지명의 선정

지명 기술 지침의 개발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우선어 선정 기준의 대표적인 조항을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분석의 결과, 우선어를 선정하는 일차적인 기준은 ‘널리, 일반적으로 알려진 형식’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지명의

선정에 관해서 Original RDA와 NCR, KCR5(안)는 모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명칭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일반적인 기조는 단체명 전거의 경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 빈번하게 나타난 이름을 우선한다는 전제하에, 한·중·일은 한글 우선, 나머지는 로마자 표기 우선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KCR5(안)는 ‘원 글자 그대로’라고 하여 원어 표기 우선 형식을 채택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KCR5(안)에서는 널리 알려진 이름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을 만들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지명 선정의 기본 지침을 먼저 지역과 문자에 따라 〈표 5〉와 같이 설정하였다. 동양권의 주요 국가인 한·중·일 지명에 대한 지침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의 언어로 된 지명은 해당 언어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친숙성을 고려하여 모두 로마자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 3〉 지명 전거 기술 지침의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머리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배경 및 목적 1.2 범위 1.3 용어정의 1.4 관련 표준 2. 우선 지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2.1 범위 2.2 정보원 2.3 선정원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2.3.1 일반원칙 2.3.2 동일명칭의 다른 형식 2.3.3 관할권을 지닌 정부의 명칭 2.3.4 명칭의 변경 2.4 우선 지명의 기술 <ol style="list-style-type: none"> 2.4.1 어구 등의 생략 2.4.2 상위의 장소나 관할권 2.4.3 동일명칭의 상이한 장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이형 지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3.1 범위와 정보원 3.2 기술 <ol style="list-style-type: none"> 3.2.1 대체 언어 지명 3.2.2 기타 이형명 4. 지명의 속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4.1 원칙 4.2 지역 부호 4.3 지명 유형(관할권명) 4.4 연관 국가 4.5 좌표(위치 정보) 4.6 주기
--	--

〈표 4〉 분석 대상 규칙 및 지침의 우선어 선정 기준

구분	우선어 선정 기준
Original R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작성 기관에서 우선하는 언어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이름 형식 (16.2.2.3 우선 장소명의 선정)
NC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명칭 (#12.1.2 우선명칭의 선택)
KCR5(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단체명을 선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을 선정. 이 경우 관용형이나 간략형도 포함 (1.7.1.1.3 우선명의 선정) • 단체명 및 행정기관의 기술에 있어서 일본 및 중국 행정기관 및 로마자 행정기관은 모두 원어 표기 형식을 우선명으로 사용 (1.7.1.1.3 우선명의 선정)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 - 단체명(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이고 널리 알려진 형식을 선정하고 정보원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으로 기술 (2.2. 채택표목의 선정과 기술. 가. 선정원칙 나. 채택표목의 기술) • 널리 알려진 이름 파악이 어려운 경우 (2.2. 채택표목의 선정과 기술. 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다른 언어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 한·중·일은 한글 표기, 기타 지역은 로마자 표기의 순으로 우선 형식을 선정 - 축약형이 있는 경우, 완전형을 채택표목으로 선정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 업무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완전형을 기본으로 하되, 준말이 일반적인 경우 준말을 우선으로 할 수 있음 (3.2.2 우선어 선정 원칙) • 지명과 행정구역명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일반 지명을 우선어로 채택하고 행정구역명을 비우선어로 처리 (3.2.2 우선어 선정 원칙)

중국어 지명과 일본어 지명의 경우 원음을 한글음으로 읽어 우선명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미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우선명으로 기술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관용을 인정

한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지명 선정을 위해 〈표 6〉과 같은 규칙을 설정하였다.

우선 지명 기록에 관한 지침은 〈표 7〉과 같이 구성하고 지침의 내용을 개발하였다.

〈표 5〉 지역과 언어별 우선 지명 선정 원칙

지명 유형	지침의 주요 내용
한국 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로 우선명 기술 •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변환한 명칭을 이형명으로 기술 • 한자가 있는 경우 이형명으로 기술
중국 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어 원음을 한글음으로 읽어 우선명으로 기술 • 한자는 이형명으로 기술 • 이미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우선명으로 기술 • 그 외에 간자체와 번자체가 있는 경우, 중국 지명이 로마자 형식으로만 나타난 경우 등에 대한 지침 설정
일본 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타카나와 히라가나를 한글음으로 읽어 우선명으로 기술 • 이미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우선명으로 기술 • 일본 지명이 로마자 형식으로만 나타난 경우, 해당하는 한자를 찾아 한글음으로 읽은 우선명을 채택하고 해당하는 한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우선 지명을 로마자로 기술
기타 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을 제외한 모든 지명의 우선명은 로마자로 기술 • 그 외에 정서법, 맞춤법, 두문자법, 강세와 기타 음성 구분기호, 붙임표, 온점과 그 뒤에 나오는 공백, 대문자 표기법 등에 대한 지침 설정

〈표 6〉 우선 지명 선정 원칙에 관한 지침의 구성

지침의 조항	주요 내용	
일반 원칙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명칭을 선정한다.	
동일 명칭의 다른 형식	한자문화권인 한·중·일(원어, 한자 등)의 경우	한자문화권인 한·중·일(원어, 한자 등)의 경우, 한글 표기 형식을 채택한다. 한국 지명의 경우, 서로 다른 언어나 문자 형식 중에 한글 표기를 우선명으로 선정한다. 중국의 지명은 중국어 원음을 한글로 읽은 형식을 우선명으로 채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이미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우선명으로 허용한다.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원음을 한글로 읽은 형식을 우선명으로 한다. 일본의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 지명에 사용된 가타카나와 히라가나를 한글음으로 읽은 형식을 우선명으로 채택한다. 이미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우선명으로 허용한다.
	기타 지역의 경우	한중일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지명은 로마자 표기를 채택한다. 영어로 우선명을 채택하는 경우, 각국이 선정한 주요 정보원에 따라 영어로 된 우선명을 선정한다.
	서로 다른 언어나 문자 형식 중에 한글·로마자 없는 경우	서로 다른 언어나 문자 형식 중에 한글 및 로마자 표기가 없는 경우, 해당 장소의 공식 언어 형식을 우선명으로 선정한다. 공식 언어가 둘 이상인 경우, 영어 형식을 우선 지명으로 선정한다.
	한글·로마자 형식과 장소의 공식 언어 형식을 모두 알 수 없는 경우	한글 및 로마자 형식과 장소의 공식 언어 형식을 모두 알 수 없는 경우, 첫 번째로 입수된 저작에 나타난 형식을 우선명으로 선정한다.
관용형, 간략형	장소의 명칭이 데이터 작성 기관에서 정한 언어의 참고자료에서 관용형 또는 간략형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경우는 그것을 우선명으로 선정한다.	
관할권을 지닌 정부의 명칭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명칭이 해당 지역에 관할권을 가진 정부의 명칭인 경우, 그것을 선정한다.	
명칭의 변경	지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지명과 변경 후 지명을 각각 우선명으로 선정한다. 변경 전 지명과 변경 후 지명 간의 관계는 「~도 보라」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표 7〉 우선지명 기록에 관한 지침의 구성

지침의 조항		주요 내용
어구 등의 생략	첫머리에 오는 관사	지명의 서두에 관사(이두관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생략하지 않고 기록한다.
	머리글자(이니셜)	지명에 머리글자를 포함하는 경우, 지명 사전 등의 참고 자료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에 따라 온접 여부를 선택하여 기록한다.
	관할권의 유형을 포함하는 지명	행정구분을 나타내는 말이 지명의 서두에 있는 경우에는 우선명의 기록에서 이를 생략한다.
상위의 장소나 관할권	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자체)명의 관용형	지명을 정부 명칭의 관용형으로 기록할 경우, 상위 장소 또는 관할권을 나타내는 말을 원 괄호에 넣어 부가한다.
	한국의 장소	동일한 지명이 다수로 존재하거나 식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의 장소는 도/특별시/광역시 수준의 행정단위를 부기한다. 식별이 되지 않는 경우 그 하위의 단위(시/군/구)까지 부가할 수 있다.
	외국의 장소	모든 외국의 지명에는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국명을 한정어로 부기하고, 국명만으로 식별이 어려울 경우, 국명 아래의 차상위 지역명까지 함께 부기할 수 있다.
	해외영토, 속령 등	해외영토, 속령 등의 우선명에는 상위 관할권명을 부가하지 않는다. 해외영토나 속령 내부 장소의 우선명에는 그 해외영토, 속령 등의 명칭을 부가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속하는 내부 장소	시(市) 등 내에 위치한 지명(군, 구, 동 등)의 경우, 우선 지명의 일부로서 시 등의 이름 및 그 상위 장소를 기록한다. 우리나라에 속한 장소는 관할구역으로 구별하여 '도-군/시', '시(특별 및 광역)-구-동' 중 필요한 단위까지 부기하고, 외국인 경우는 도시명을 확인할 수 있다면 도시와 국명을, 확인할 수 없다면 국명만을 한정어로 추가한다.
	동일명칭의 상이한 장소	상위 장소 또는 관할권의 명칭을 부가하더라도 동일 명칭을 가진 둘 이상의 다른 장소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을 구별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나 구를 우선 지명에 포함시킨다.

상위의 장소나 관할권에 관한 지침에서 판단이 필요한 것은 상위 지명의 부기 여부와 방식이다. LC나 국립중앙도서관의 실제 데이터를 보면 상위의 장소를 부기하는데 있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식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식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위 지명은 한국의 경우 국명을 제외한 최상위 지명을 부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차상위 지명도 함께 부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외국의 지명에는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국명을 한정어로 부기하고, 국명만으로 식별이 어려울 경우, 국명 아래의 차상위 지역명까지 함께 부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명이 한글이면 부기하는 행정단위도 한글

로 하여 부가하고, 상위 장소 또는 관할권의 명칭을 두 개 이상 부기할 경우 서양 어순과는 달리 큰 단위부터 작은 단어 순으로 작성하고, 단위 사이는 공백을 둔다. 지명이 로마자이면 부가하는 행정단위는 영어 또는 지명과 같은 언어로 기록하고, 상위 장소 또는 관할권의 명칭을 두 개 이상 부기할 경우 순서는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 순으로 작성한다. 행정단위 사이는 쉼표로 구분한다.

4.3 관할권의 유형

본 지침은 우선 지명에 관할권의 유형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을 우선형으로 삼는다는

RDA 및 NCR의 기본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각 지침의 관련 규정 및 이에 따른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비교적 익숙한 로마자로 된 지명이라 할지라도 관할권의 명칭을 포함시키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형식과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RDA 11.7.1.5에서 관할권의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은 County, Landkreis, Regierungsbezirk, Province, Powiat, Voivodeship, State, Federation, Judet, Duchy, Kingdom, Ecclesiastical principality, City, Village 등이 있다. 이러한 로마자로 된 관할권을 포함하는 지명은 물론, 식별하기 어려운 비로마자화된 각국어 지명의 모든 관할권 명칭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우선 지명으로 채택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주제명 작성을 위한 지침(國立國會圖書館收集書誌部, 2022)에서는 주제명 작성 시 행정단위를 포함할 것인지에 관하여 각국별로, 행정 단위별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어 RDA와 같은 서구 중심의 규칙과 차이를 보여준다. 하지만, 일본의 주제명 작성 지침과 같이 각국별로, 행정단위별로 다르게 지침을 설정하고자 하면 지명 전거데이터 작성시 우선 지명 판단에 많은 노력이 소요될 것이다.

한국 지명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 - 단체명(안)』(국립중앙도서관, 2018b)에 따르면, “한국의 지방행정기관 중 채택표목의 기본요소로서 기술되는 행정 단위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이며 외국의 경우 이에 준하는 행정 단위로 한다. 한국, 일본, 중국의 지방행정기관의 경우 행정단위명(예: 시(市), 구, 군, 도, 성(省), 현(縣) 등)

을 지역명과 함께 채택표목으로 기술한다”(바. 정부기관. 5) 지방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단체명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을 적용한다면 한국의 지명은 행정구역명을 완전형으로 붙인 형식을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우선 지명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행정구역의 단위가 복잡하고 친숙하지 않으므로 지명의 정확한 행정구역 단위를 찾아 우선 지명으로 삼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중국과 일본 이외의 외국 국명의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더욱 클 수 있다. 앞선 단체명 기술 지침에서 규정된 “한국의 행정 단위에 준하는 행정 단위”가 무엇인지 각국별로 파악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 단위를 지역명과 함께 표기한 형식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형식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완전형 형식을 우선 지명으로 사용하면, 식별을 위해 지명이 한정어로 사용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축약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뒤따른다. 한정어로 부가되는 지명을 행정단위까지 포함한 완전형으로 사용할 경우 표목이 길고 복잡해지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형식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RDA에서 우선 지명, 이형 지명의 개념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실제 전거데이터로써 활용될 때에는 하나의 개체에 대한 우선형과 이형이 기능상 차이를 갖지 않는다. 또한, 행정단위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사례별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면 데이터 검색과 활용 시 우선적으로 표출되는 우선형이

일반적이지 않은 형식일 가능성도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지명 선거데이터의 활용 측면에서도 완전형 보다는 일반적인 지명 형식을 우선형으로 채택하는 것이 편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선거데이터 작성 및 활용의 측면에서 우선 지명 선정의 편의성, 우선 지명 형식의 보편성, 우선 지명 형식과 한정어로 쓰이는 지명의 통일성 등을 고려할 때 완전한 형식을 일반적으로 우선 지명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명 형식을 우선 지명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하여, 본 지침에서는 관할권을 포함하는 지명의 경우에도 ‘데이터 작성 기관에서 우선하는 언어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이름 형식을 우선 지명으로 선정한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우선 지명들 간에 가급적 통일된 형식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할권의 유형은 모두 제외한 형식을 우선 지명으로 삼는 것을 기본 규정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관할권명은 우선 지명이 아닌 속성의 하나로 취급하였다. Original RDA에서 관할권의 유형은 지명이 아닌 단체명에 관한 지침에서 다루면서, 관할권

의 유형은 우선 지명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보아 지명의 속성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다만, 위의 방식은 데이터의 일관성의 측면에서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2안으로 기관에서 지명별 특수성을 살려 특정 지명그룹 내의 일관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동서양 각국 및 행정 단위별로 특수성을 반영하여 상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각국별 행정 구역 단위를 목록화하여 관할권명을 우선 지명에 포함시키는 경우와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등을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지명 선거데이터 작성의 실무적인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안으로는 일괄적으로 행정구역을 붙인 완전형을 우선 지명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원칙은 간단하지만 실제 선거데이터 구축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활용시에도 일반적인 형식과의 차이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3안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상의 3가지 안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우선 지명에 관할권을 포함하는지 여부

구분	지침	판단 근거 및 고려사항
1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작성 기관에서 우선하는 언어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이름 형식을 우선 지명으로 선정 • 우선 지명들 간에 가급적 통일된 형식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할권의 유형은 모두 제외한 형식을 우선 지명으로 삼고 관할권명은 속성의 하나로 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지명 선정의 편의성, 우선 지명 형식의 보편성, 우선 지명 형식과 한정어로 쓰이는 지명의 통일성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명 형식을 우선 지명으로 선정하는 것이 편익이 있음 • 관할권명을 분리하여 데이터 구축과 관리 용이
2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양 각국별로 특수성을 반영하여 행정구역을 구분하고 상세 지침을 마련하여 사례에 따라 관할권명 포함 여부를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별 특수성을 인정 • 사례별로 친숙한 형식으로 우선 지명을 선정하고 표출 시키고자 하는 경우 유리
3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적으로 행정구역을 붙인 완전형을 우선 지명으로 삼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리적으로 완전성과 일관성이 있음 • 선거데이터 구축과 활용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4.4 이형 지명의 선정과 기록

이형 지명은 우선 지명으로 선정된 형식을 제외한 모든 것이므로 특별한 선정의 기준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지명의 경우, 관할권의 명칭을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 약어형과 완전형 간의 선택 등이 우선 지명과 이형 지명을 구분하는 주요 판정 요소가 된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이외에도 한자 표기와 읽기 방법에 따라 이형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관할권의 유형을 파악하여 상위 지명이 한정어로 부기되는 경우 등에서 적절한 단위의 행정 구역이 부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 외의 이형에 관한 지침은 대부분 로마자 표기에 관한 것으로 RDA의 규칙과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다만, 로마자로 된 지명의 전거데이터 작성을 위해서는 부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문자법, 관용형의 처리, 관할권의 유형 정의, 약어형의 표기 방식, 어두 관사의 처리 방법 등이 지침과 별개로 개발되어야 한다. RDA의 경우 이러한 사항에 대한 별도의

부록이 마련되어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어떤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고 어떻게 자료화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표 9〉 참조).

이와 같이, 이형 지명에 관한 지침은 대체로 선정이 아닌 기록에 관한 것이다. 이형 지명의 기록을 위한 상세 지침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설정될 필요가 있다(〈표 10〉 참조).

4.5 지명의 속성

지명의 식별 속성은 Original RDA, NCR 등 참고로 한 기술 표준에서도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FRAD(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 전거데이터의 기능상 요건)에서는 “장소 개체에 대해 정의된 속성은 없으며, 주제 전거레코드의 기능 요건에 관한 실무진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각국의 실제 지명 전거데이터에서는 몇몇 주요 속성을 요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Official RDA에서는 지명의 속성 유형 4개를 정의하고 있다. 향후 Official RDA

〈표 9〉 우선 지명과 이형 지명 판정의 주요 사항

지역 구분	판정 요소	사례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권의 명칭을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 • 약어형과 완전형의 선택 	151 ▼a광주 (경기도) 151 ▼a광주 (중국)
중국과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 표기와 읽기 방법 • 상위 지명이 한정어로 부기되는 경우 적절한 단위 	151 ▼a사가 (일본) 451 ▼a사가현 451 ▼aさがけん 451 ▼a佐賀縣
로마자 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문자법, 관용형의 처리, 관할권의 유형 정의, 약어형의 표기 방식, 어두 관사의 처리 방법 등 개발 	151 ▼aItaly 451 ▼aRepubblica Italiana 451 ▼a이탈리아 451 ▼a이탈리아 공화국

〈표 10〉 이형 지명 기록의 주요 지침과 사례

지침의 구분		사례	
대체 언어 지명	상이한 언어 형식	451 ▼aVenezia 451 ▼a베네치아 451 ▼a베니스 (영어 형식의 우선명: Venice (Italy))	
	상이한 철자 형식	451 ▼aRumania (상이한 철자의 우선명: Romania)	
	상이한 번자 형식	451 ▼aBelebey (Russia) 451 ▼aBelebej (Russia) (상이한 번자 형식의 우선명: Belebeĭ (Russia))	
기타 이형명	상세도가 다른 형태	전개형(완전명)	451 ▼a중화인민공화국 (우선명으로 '중국'이 선택된 경우)
		약칭형	451 ▼aU.S.A. (우선명으로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선택된 경우)
	서두의 관사 유무에 따른 다른 형태	451 ▼aThe Hague (우선명: Hague (Netherlands))	
	이니셜의 마침표 유무에 따라 다른 형태	451 ▼aP.E.I. (우선명: Prince Edward Island (Canada))	
	수(數)의 표기가 다른 형태	451 ▼aPio 12 (Brazil) (우선명: Pio XII (Brazil))	
	상이한 이름 형식	451 ▼a가지도 451 ▼a리양쿠르 암 451 ▼aSambong-do (우선명: 독도)	

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기가 온다면 속성을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에도 지명의 속성과 설명 요소가 MARC 형식에서 별개의 필드로 작성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기술 표준에 맞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장래의 구조화 방식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명 전거데이터에 유용하다고 판단된 장소의 속성을 포함시켰다.

지명의 속성은 각국의 지명 전거레코드 사례 조사 결과, 사용되고 있는 속성을 비교 검토하여 핵심적이거나 장소의 속성을 나타내기에 중요한 것이라 판단되는 것을 선정하였다. 이는 대체로 Official RDA에서 정의한 속성과 일치

하였으며, 이 중 ‘연관된 개체’는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기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제외하였다. LC-PCC MGD에서도 속성 중 ‘연관된 개체’는 대상 범위가 너무 넓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다(LC PCC, 2021).

본 연구에서 지침에 포함한 속성은 지역 부호, 지명 유형(관할권), 좌표(위치 정보), 연관 국가, 정보원, 전기적 또는 역사적 정보, 이용자 일반주기 등 7개이다. 이러한 속성은 기본적으로 ‘지명의 식별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정의된 각 속성에 대한 기본 설명과 전거통제용 MARC 형식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표 11〉 참조).

〈표 11〉 속성의 유형 및 정의

유형	정의와 사례	
지역 부호	해당 지역의 지역 부호를 기술한다. KORMARC 부호표 중 한국지역구분부호표나 외국지역구분부호표를 참고할 수 있다. (예) 043 ▼a11000-- 151 ▼a서울	
지명 유형, 관할권명	관할권의 유형, 장소의 유형을 나타낸다. 통제된 어휘로 지명 유형을 정하고 그 통제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예) 151 ▼aLos Angeles (United States) 368 ▼bcity	
연관 국가	해당 지역의 소속 국가 또는 연관된 국가를 기록한다. 지리적으로 소속된 국가가 아니라 연관성을 가진 국가인 경우 그 내용을 주기한다. (예) 151 ▼aLos Angeles (United States) 370 ▼cUnited States ▼eCalifornia	
좌표, 위치 정보	장소의 지리적 좌표 형식을 기록한다. GeoNames의 좌표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예) 034 ▼dE0373500▼eE0373500▼fN0554500▼gN0554500▼2other 151 ▼aMoscow (Russia)	
주기	정보원	지명 전거데이터 기술의 인용정보 출처로서 해당 저작, 참고정보원, 타도서관 전거데이터 등이 해당된다. 우선명이나 이형명, 장소의 속성을 기록하는데 출처가 된 정보원은 모두 기술한다. (예) 151 ▼a독도 670 ▼a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uhttps://encykorea.aks.ac.kr 670 ▼a표준국어대사전▼uhttps://stdict.korean.go.kr
	전기적, 역사적 정보	지명에 대한 전기, 역사, 기타 정보를 요약하여 기술한다. (예) 151 ▼a서울 678 ▼a선사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하였으나 본 역사는 백제 첫 수도 위례성을 시초로 한다. 삼국시대에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번갈아 차지하였으며, 고려 시대에는 왕실의 별궁이 세워진 남경(南京)으로 이름하였다. (이하 생략)
	이용자용 일반주기	다른 주기 성격의 속성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이용자용 일반주기를 기술한다. (예) 151 ▼aYugoslavia 680 ▼i발칸 반도 서부에 있는 나라. 면적은 10만 2173km ² , 인구는 1066만 4000명(2002)이다. 인구밀도는 104.4명/km ² (2002)이다. 정식명칭은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Federativna Republika Jugoslavia)이다. (이하 생략)

특히 해외 지명 중 관할권이 있는 경우, 어느 수준까지의 관할권명을 기술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경우 읍이나 면 등에 대한 상세 정보가 필요하지만, 외국인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지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속성을 기록하려 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관할권명, 지명 유형 등에 대한 정의와 용어집 마련 등 부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5. 논의 종합 및 결론

본 연구는 지명 전거데이터 구축을 위한 목록 규칙과 지침을 분석하고, 지명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의 개발 방향과 원칙을 수립하였다. 국제적인 표준화와 국내 국가선거 표준화의 방향성을 고려하되, 기존의 RDA나 KCR5(안)을 적용하더라도 별도의 검토와 실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였다. 또한, MARC 중심

의 데이터 구축과 한국 및 동양권의 지명 전거 데이터의 확충이 시급한 국내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을 고려하되, 동시에 실무에서의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나라의 지명 전거데이터 구축의 표준화를 위한 지명 전거 기술 지침 개발에는 향후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지명에 대한 Original RDA의 미개발 상태를 고려한 상황 판단이 필요하다. Original RDA는 2017년 4월 11일을 마지막으로 내용적인 변경은 없으며, 특정 언어로 번역된 버전을 추가하기 위한 한 번의 개정이 있었던 이후로는 더 이상 추가되거나 개정되지 않고 사실상 종료되었다. 장소에 대한 규칙 개발이 애초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개발 상태로 종료되어 FRBR 개념 모델을 기반으로 RDA가 의도했던 장소에 대한 기술과 관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KCR5는 2024년 Original RDA의 이론과 형식을 반영하여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명 기술에 관한 RDA 규칙 자체가 미완성이므로, 이를 반영한 KCR5도 미개발된 상태 그대로를 반영할 예정이며, 지명 전거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갖출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이를 대신할 지침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향후 KCR의 개발 방향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역할로 지침도 계속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실정과 데이터에 맞는 규칙 개발이 필요하다. KCR5가 대체로 RDA를 한글화한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 지명 전거에 관해 미개발된 상태로 남아있는 부분들은 한국목록규칙에서도 동일하게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Original RDA는 개발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처럼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국내 조항과 지침을 독자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AACR, RDA 계열의 목록규칙 및 그를 보완하기 위한 각종 지침 등은 모두 서구 중심적인 조항을 설정하고 서구적인 시각에서 사례들을 수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서지 표준화를 위하여 RDA를 비롯한 지명 전거 개발 관련 지침을 수용하되, 한국적 특수성과 사례에 특화된 규칙 개발 및 예시 발굴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침은 RDA 및 KCR5(안)의 방식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우선 지명 선정에 있어 본 지침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중국어 지명과 일본어 지명을 한글 음으로 읽어서 우선명을 선정하고, 한글 표기 형식을 우선명으로 채택하는 것은 원어를 우선명으로 채택하는 RDA 및 KCR5(안)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언어나 문자 형식 중 한글 및 로마자 표기가 없는 경우, 해당 장소의 공식 언어 형식을 우선명으로 선정하는 것은 영어로 된 참고자료에 나타나는 형식을 우선명으로 채택하는 KCR5(안)의 규칙과 상이하다. 본 지침은 한국이라는 지역적 환경에서 지명 전거데이터 구축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친숙한 동양어 및 로마자 표기가 있는 지명의 경우 한글 및 영어 형식을 우선하였고, 특별히 우선 순위를 따지기 어려운 친숙하지 않은 언어의 경우, 지명 고유의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하고자 하는 방침에 따랐다. 따라서, 본 지침은 국제적인 표준 및 그러한 추세에 조응할 필요

가 있는 국가 대표 기술 규칙과는 차이가 있다. 앞으로 국제적 규칙 및 국가를 대표하는 규칙과 실무적 지침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이러한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Original RDA, Official RDA 등 새로운 목록규칙으로의 이행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이미 RDA 툴킷에서 Original RDA의 삭제 및 Official RDA의 본격적인 적용 시점이 결정되었으나(RDA Toolkit, 2023)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에 Original RDA를 반영한 KCR5가 발표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2027년경 Official RDA가 본격 실행된다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국제적인 흐름에 10년 이상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다. 다만, 3R을 반영한 Official RDA의 본격적인 실행 시기가 3년 유예되었으므로(LC PCC, 2023a), 우리나라에서는 Original RDA와 Official RDA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다소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Official RDA의 적용이 본격화될 것이므로 KCR-Original RDA-Official RDA의 적용 흐름에서 Original RDA의 적용 기간을 최소화하고 Official RDA로 자연스럽게 빠르게 이행해갈 수 있는, 국제적인 서지제어 흐름에

발맞출 수 있는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명 선거데이터에 대한 인식 증진 및 협력적 데이터 구축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선거데이터에 관한 실무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나, 지명 선거데이터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홍보와 인식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국내 지명 선거데이터의 확보와 실무 경험을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LC-PCC와 같이 협력적 데이터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와 플랫폼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품질 좋은 데이터 확보와 실무 사례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명 선거데이터 구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규칙과 지침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명 선거데이터 작성 지침은 사실상 기술 규칙이자 지침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추후 KCR5가 확정된다면 지침 전반에 걸쳐 체계와 용어 등 내용적인 호응이 이루어지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지명에 대한 규칙이 개발된다면, 그 규칙을 보완하는 지침으로서의 성격에 맞게 내용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선거 외연 확장을 위한 지명 선거데이터의 구축, 운영 및 연계 서비스 개발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립국어원 (2017). 외래어 표기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4호.

출처: https://korean.go.kr/kornorms/regltn/regltnView.do?regltn_code=0003#a

국립중앙도서관 (2016).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선거통제용(KS X 6006-4).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8a). 국립중앙도서관 선거데이터 기술 지침: 개인명.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8b). 국립중앙도서관 선거데이터 기술 지침: 단체명(안).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2021a).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 업무지침.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2021b). KOLIS 전거관리 시스템 활용 매뉴얼: 개인명·단체명.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2022). KOLISIII 사용자지침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2).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ed.].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Library of Congress (2023). MARC 21 format for authority data. Available: <https://www.loc.gov/marc/authority/>
- Library of Congress (2024a). Library of Congress descriptive cataloging manual: Z1 name and series authority records. Available: <https://www.loc.gov/catdir/cps0/z1andlcguidelines.html>
- Library of Congress (2024b).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 manual. H 690 Formulating geographic headings. Available: <https://www.loc.gov/aba/publications/FreeSHM/H0690.pdf>
- Library of Congress-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 (2017.8.8). LC policy statements for chapter 16: Identifying places. Available: <http://original.rdatoolkit.org/lcpschp16.html>
- Library of Congress-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 (2023a). Update on the PCC's implementation of the official RDA toolkit. Available: <https://www.loc.gov/aba/pcc/rda/update-on-PCC-implementation-of-Official-RDA.pdf>
- Library of Congress-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 (2023b). LC-PCC metadata guidance document: Place. Available: <https://loc.gov/aba/rda/mgd/place/mg-place.pdf>
- RDA Steering Committee (2021). 3R project final report. Available: <http://www.rda-rsc.org/sites/all/files/3R%20Project%20Final%20Report.pdf>
- RDA Steering Committee (2023). RSC/PlacesWG/2023/1/Decisions. Available: http://www.rda-rsc.org/sites/all/files/RSC_Places_WG_2023_1_Decisions.pdf
- RDA Toolkit (2023). Available: <https://access.rdatoolkit.org/>
- Transition Bibliographique Groupe Normalisation (2023). RDA-FR: Transposition française de RDA. Section 4. Enregistrement des attributs du concept, du laps de temps, de l'événement et du lieu.
- 國立國會圖書館收集書誌部 (2022). 國立國會圖書館件名作業指針. Available: https://www.ndl.go.jp/jp/data/catstandards/classification_subject/pdf/subj_manual2209.pdf

目録委員會 (2023.3.1). 日本目録規則 2018年版. 日本圖書館協會. Available:
<https://www.jla.or.jp/committees/mokuroku/ncr2018/tabid/787/Default.aspx>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National Language Institute (2017). Notation of Foreign Word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otification No. 2017-14. Available:

https://korean.go.kr/kornorms/regltn/regltnView.do?regltn_code=0003#a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6). Korean Machine-readable Cataloging Format for Authority Control (KS X 6006-4).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8a). Technical Guidelines for Authority Data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Personal Name.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8b). Technical Guidelines for Authority Data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Organization Name.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1a). National Library of Korea Subject Headings Guidelines.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1b). KOLIS Subject Name Management System User Manual: Individual Name · Organization Name.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2). KOLIS III User's Guide.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